

황희는 어떻게 87세까지 영의정을 했나

검소·충명 겸비한 조선 최고 2인자의 삶



황희

오기수 지음

조선의 영의정하면 황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황희는 세종대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다스린 조선 최고의 2인자였다.

평균수명이 40세인 조선에서 황희는 90세까지 살았다. 조선시대는 물론 현대에도 나이 90은 찾아보기 힘든 천명을 넘긴 삶이다. 황희의 관직 생활 60년 중 세종대왕과 함께한 세월은 28년이었다. 그 가운데 24년을 수상으로 재임했다.

그는 87세까지 일인자만 만인자상인 영의정으로 재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70의 나이에 영의정이 될 수 있었으며 조선에서 영의정으로 가장 오랫동안 재임했을까? 거기에 명재상이라는 평판까지 얻었을까?

오기수 김포대 세무회계정보학과 교수가 펴낸 '황희'는 '민본시대를 이끈 행복한 2인자' 황희의 삶을 조명한다. 저자는 황희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후, 정대, 검소, 충명 네 가지를 겸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황희는 관후하고 침중하여 재상의 신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한 자질이 크

고 훌륭하여 충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일을 의논할 적엔 정대하여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관후는 마음이 후덕하고 너그럽다는 의미다. 황희는 모든 사람을 관후하게 대했는데, 거기에는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정대는 정사를 처리함에 있어 바르고 올바름을 뜻한다. 대개 관후하면서 정대하기는 어렵지만 황희는 두 가지의 덕목을 겸비했다.

세 번째로 황희는 검소하면서도 청렴했다. 조선왕조에 정백리로 녹선된(추천받아 벼슬길에 오름) 이가 218명인데 이 가운데 정승을 지낸 이는 고작 18명에 불과하다.

마지막 덕목인 충명은 슬기롭고 도리에 밝다는 뜻으로 자질의 의미가 담겨 있다. 황희는 죽을 때까지 충명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평판을 받았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세종대왕 같은 1인자, 황희 같은 2인자의 조화로운 인간경영이 필요한 시대"라며 "거칠고 험한 경쟁의 시대, 물질적인 부를 좇아 인간성을 버리는 탐욕의 시대에, 사람 사는 지혜의 길을 찾아 황희를 돌아본다"고 말한다.

〈고반·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로의 야생화 일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고전이다. '월든'은 1845년 7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산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평생을 사랑했던 존재가 있었다. 다름 아닌 야생화다. 잿빛 절벽 틈에서 자라는 매발톱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수련 등 야생화는 척박한 곳에서 피고 진다.

"야생화는 단 한 순간의 햇빛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날씨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보다 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야생화를 관찰하며 느낀 사유의 단편들을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야생화 일기'에는 "월든을 만든 모든 순간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야생화를 매개로 한 소로의 자연주의 삶이 녹아 있다. 책을 읽는 이는 작가이자 서평가인 제프 위스너로 현재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책에는 자연주의 철학자로서의 소로의



서양민들레



그래스핑크



좁은잎해란초

모습 외에도 식물학자로서의 소로의 면모가 담겨 있다. 책 속에서 펼쳐지는 50여 개 야생화의 대향연은 강렬한 향기로 다가온다. 특히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판화가로 꼽히는 베리 모저의 삽화도 곁들여져 있어 보는 맛도 느낄 수 있다.

책은 하루하루 꽃을 관찰하며 남긴 기록이지만 그 자체로 문학작품이라 해도 무방하다. 섬세한 묘사와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익어가는 사과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나는 그리 난하지 않다. 시냇물도 내게는 깊다. 가을꽃 블루벨은 모래 위에 고개를 내민 환한 파란색 꽃송이뿐 아니라 강한 돼지풀 향도 계절과 잘 어

울린다. 이 색과 향이 내 영혼을 먹고, 나로 하여금 땅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며 기쁨에 넘치게 해준다."

소로의 일기에는 물말초, 수련, 접시꽃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꽃들 외에도 생소한 꽃들 이야기도 있다. 퍼플 베르노니아, 로툰디톨리아초롱꽃, 필브리아 타잠나리나초 등 낯선 꽃들도 흥미롭다.

책을 읽은 제프 위스너는 "소로는 야생화를 관찰할 때 초본식물과 나무, 풀에 피는 섬세한 꽃은 물론 '유령' 같은 기생 개화식물인 수정난꽃이나 구성난꽃 따위에도 똑같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단풍나무나 진홍 참나무가 공중에 휘저어처럼 드리운 가을 나뭇잎에서도 꽃을

느끼고 반응했다"고 밝혔다. 소로가 야생화를 관찰하기 위해 애썼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때로는 빗속을, 때로는 철로 독길을 걸으며 매일 같이 꽃이 필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각각이 쉬지 못할 만큼, 야생화에 대한 관찰에 몰두하느라 나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할 정도였다. 소로의 마음에 야생화로 가득차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본문 속 식물 용어들은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용어의 정확성에 신중을 기했다.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조명·물...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침술



도시침술

자이미 레르네르 지음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 기억을 담은 공원 벤치...

음악이나 조명처럼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상력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마치 신체 곳곳에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 건강을 회복시키는 침술처럼 기존 시설을 없애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아도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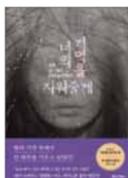
'도시침술'(Urban Acupuncture)은 브라질의 쿠리치바를 세계적인 창의도시이자 생태도시로 변화시킨 자이미 레르네르가

펴낸 첫번째 책이다. 그는 40여 년간 쿠리치바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인 매가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쇠락한 도시를 활기찬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게 됐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도시를 살리는 도시침술 39'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에는 음악, 조명, 물, 그 도시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유한 소리, 시민들이 도시에 가지는 자부심 등 다섯가지의 침술로 새롭게 태어난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책에 따르면 특히 음악은 훌륭한 도시침술이다. 삼바가 리우데자네이루를 화려하게 만들고 탕고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매력있게 보이게 하는 건 음악 덕분이다. 책을 읽다 보면 도시 재생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된다.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으로도 얼마든지 도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푸른숲·1만7천원〉

전은재기자 eif6621@kwangju.co.kr

2016년 아마존 최고의 책 선정된 심리스릴러



나의 기억을 지워줄게

헨리 워커 지음

미국의 작은 도시 어느 파티장. 숲으로 나온 열다섯 소녀 제니를 쫓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도망을 치다 어진 제니를 남자는 강하게 누른다. 남쪽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누군가 소리를 듣고 달려온다. 그러나 낯선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다.

2016년 아마존 최고의 책 선정되고

22개국에서 출간된 헨리 워커의 '나의 기억을 지워줄게'가 나왔다. 저자인 헨리 워커는 미국 최고의 로스쿨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변호사다. '나의 기억을 지워줄게'는 저자의 심리스릴러 데뷔작으로, 영화제작사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 판권을 계약했다.

소설은 강간 피해자인 제니의 심리를 통해 과연 '나쁜 기억은 지우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제니처럼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 기억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기에 놓여 있다.

〈북로그컴퍼니·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제국 마지막 왕녀의 일생과 황실 가족 이야기



마지막 황실의 추억

이해경 지음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일까, 비극일까.

'대한제국'은 일제의 국권 침탈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대한민국은 근현대사 역사책이나 나오는 시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책은 고종황제의 손녀이며 의친왕의 딸로 대한제국 마지막 왕

녀인 저자의 일생과 아버지인 의친왕, 어머니 의친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절과 법도를 중시하는 황실과 개화된 세상 사이를 오간 저마다 살 때부터 궁에 살면서, 대한제국의 궁궐 생활을 직접 겪었다. 어린 시절, 왕녀로 살아왔던 남다른 삶과 일제 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 때 학살 시절을 보낸 경험, 해방 이후 6·25전쟁이 터지면서 겪은 혼란 등을 고스란히 책에 기록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한제국 황실과 구한말의 숨겨진 역사를 황실 가족의 일생을 통해 재조명했다.

〈유아이북스·1만5000원〉

전은재기자 eif6621@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